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학습공과>

글쓴이 : 로버트 B. 슬론 Jr

조슈아 그리잘바

짐 데니슨

Baptist Way Press®

달拉斯, 텍사스

학습공과,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판권소유 © : 2003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혁한글 성경
, 1967 에서 했습니다.

초판 : 2003년 1월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행정책임자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교회 건강과 성장 고문 : H. 린 애크버거(H. Lynn Eckeberger)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

단원 1, 1 ~ 4과, 학습공과 번역

김대형 목사 - 제자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1, 1 ~ 4과 학습공과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5과 학습공과 번역

김대형 목사 - 제자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5과 학습공과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6 ~ 7과 학습공과 번역 및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3, 8 ~ 13과 학습공과 번역 및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한국어 집필 고문위원

로이스 로즈(Royce Rose), 신학교육 코디네이터, 텍사스 주총회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암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 학습공과

화▣ B. 슬론 Jr., 첫 단원의 저자이며, 텍사스, 웨이코에 위치한 베일러 대학의 총장이자 행정 수석으로 있다. 슬론 박사는 베일러 대학을 졸업했고, 프레스頓 신학 대학원과 스위츠랜드에 있는 베이즐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죄지 W. 트르옛 신학 대학의 첫 번째 전도학 의장을 지냈으며 베일러 내의 죄지 W. 트르옛 신학 대학원 학장으로도 섬겼다.

좌슈아 그리잘바. 2단원의 저자이다. 그리잘바 박사는 가장 최근에 텍사스, 샌 앤토니오에 위치한 히스페닉 침례 신학 대학원의 총장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은퇴했다. 그는 국내 선교사로 51년간 섬겼다. 집필자이고 한 그는 주일 학교 공과 교재들, 성경 주제들 타민족 역사, 그리고 텍사스 내에 있는 맥시칸 침례교회들에 대한 역사를 집필했고, 다른 수 많은 저서들을 집필했다.

짐 테니슨. 3단원의 저자인 그는 텍사스, 달拉斯에 위치한 팍 시티즈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다른 지역 목회경험으로는 죄지아, 아틀란타에 위치한 세컨-폰스 데 레온과 텍사스, 미드랜드에서 사역했다. 테니슨 박사는 또한 싸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가르쳤다. 그는 휴스턴 침례 대학과 싸우스웨스턴 침례 신학 대학원(M.DIV., Ph. D.)을 졸업했다.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 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단원 1. 분열을 직면함

제 1 과	당신은 왜 어울리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1:1-17)	6
제 2 과	십자가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18-2:2)	11
제 3 과	영적 성숙으로 변화됨 (고린도전서 2:14-3:16)	15
제 4 과	섬기는 지도력 (고린도전서 4:1-14)	19

단원 2. 세상 속에서의 삶

제 5 과	부도덕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 (고린도전서 5:1-11; 6:9-20)	24
제 6 과	결혼 - 선? 독신 - 선? (고린도전서 7:1-17, 25-35)	28
제 7 과	삶의 애매한 부분과의 씨름 (고린도전서 8:1-13; 9:19-26; 10:14-31.)	31

단원 3. 세상 속의 교회

제 8 과	우리의 예배 (고린도전서 11:2-16)	35
제 9 과	이것이 주의 만찬인가? (고린도전서 11:17-34)	38
제 10 과	나의 은사 (고전 12:4-31)	42
제 11 과	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 (고전 13:1-13)	47
제 12 과	예수님을 전하기 (고전 14:1-25)	51
제 13 과	부활의 소망 (고전 15:3-20, 35-44, 50-57)	54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제 1 단원	분열을 직면함
	고린도전서는 다른 많은 중요한 주제들, 예를들면, 교회내의 분열(1-4장), 교회 훈련(5장), 은사사용(12-14장), 그리고 부활(15장)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하다. 그렇지만,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본 과에 다룬 주제인, 교회내의 분열일 것이다(1-4장).
<u>1 과</u> 당신은 왜 어울리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1:1-17	고린도 교회내의 당파에 관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일 먼저 다뤄졌으며 바울이 4장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u>2 과</u> 십자가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18-2:2	만약 우리가 도덕적, 영적, 그리고 심리적인 근본 원인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불화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시도한다면, 3장 3절에 있는 "시기"에 관한 바울의 언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¹⁾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죄의 시작인 교만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마도 우리는 다음 방법으로 그 상황을 다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는 교만에 찬 시기들이 파별과 파당을 짓게 했다. 다음으로, 이런 파당 집단들은 지도자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울 근거가 필요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설교자들에게 호소했다. 즉, 그들은 그 지도자에게 다른 모든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을(당연히 그들이 선택하는 사람) 요구했다. 이런 허황된 선호함등에 대한 변명은 주어진 지도자들 각각의 언변 능력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성경에 써 있는대로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12)와 같이 고린도에 여러 분당을 만들었다.
<u>3 과</u> 영적 성숙으로 변화됨 고린도전서 2:14-3:16	그러므로, 이 네 장에서 본파들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기들, 분열, 사도들 평가에 대한 판단 미숙,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청지기로서 사도들의 적당한 역할에 대한 바울의 제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u>4 과</u> 성기는 지도력 고린도전서 4:1-14	본파들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복음의 구심성에 관하여,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챤 지도자들의 일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이다.

[제 1 과] 핵심본문 고린도전서 1:1-17	<h1 style="margin: 0;">당신은 왜 어울리지 못하는가</h1>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순되며 크리스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도 서로 상반된다.</p> <p>탐구 질문 서로를 적대하며 종종 분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p> <p>학습 목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순되며 크리스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상반되는지를 설명한다.</p>	

들어가기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설교자들이 교회의 화합을 봉괴시키도록 교만이 가득 찬 애정으로 다가갔다. 그런 애정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의 도구로서의 복음을 회석시킨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들은 지난 1세기부터 지금까지 비극적인 사실이었었다. 바울은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나무라며 고린도 교회 크리스챤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

서두, 안부, 그리고 기도(1:1-9)

바울은 자신이 저자(1:1)라는 것과 고린도교인들이 편지의 수신자들(1:2)이라고 밝히면서 옛 헬라문화 편지 형식에 따라 편지를 썼다. 그리고 바울은-자신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혜"와 "평강"(1:3)-그리고 기도(1:9)와 같은 형태의 안부와 함께 편지를 썼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제기될 주제들을 소개하는 신학적 내용을 편지 서두에 아주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1:1)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증거자로 따로 선택되었을 때와 같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영적 경험을 암시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사도행전 26:16-17). 따라서, 바울의 사도적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고전 1:1).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을 갖게했다.

우리는 종종 "부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하지만 여기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위임된 것을 신성한 선택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바울의 사도적 직분은 고린도후서에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자주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혼란스러워졌다. 이 편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강력히 주장하며 바울이 말한 것에 초석을 세우며 시작하고 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나 다름없다 (1:2).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다.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고린도교인들의 진실 가운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에 대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그들이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비록 이 구절들에 사용된 언어가 간결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신학적 의미는 깊지고 심오하다. 바울은 크리스챤들을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그들의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로 구별되고 속한 사람들로 묘사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한 고린도교인들의 고백과 자신들의 신분을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1:2, 밑줄 친 것을 강조함)이라고 연관지은 것에 주목하라. 바울은 모든 크리스챤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고백과 모든 크리스챤들이 어디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고백함으로 서로 연합해야 함을 고린도교인들에게 상기시켰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며 기도했다(1:3). 비록 아주 간단한 안부일지라도, 여기에 사용된 제목들과 표현들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축복으로 표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쳤던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현대적 성향이나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로 "아버지"란 이름의 중요성-경배하고, 지칭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을 인식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 이 기도에는 본 편지의 중요한 주제와 같은 암시가 담겨있다. 5절에 "구변"과 "지식"이란 언급과, 7절에 영적 은사들, 7-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9절에 "교제"라는 말에 주목하라. 이와 같은 언급들은 다가올 일들에 대한 실마리이기도 하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고전 1:4). 그것은 고린도교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부유를 찾은 "그리스도 안에"있는 새 창조의 영역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은사들 특히, "구변"과 "지식"으로 "풍족했다." 더욱이,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고린도교인들의 경험을 확신시켜준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1:6).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다(1:7).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시민으로서, 그분께 신실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

성령의 은사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지속적인 확신을 의미한다. 구원은 신자들을 삶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종교적 경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시작이다. 지금도, 크리스챤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맛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신다(1:8).

교회 내의 분열(1:10-17)

고린도교인들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는 그들 사이에 성행했던 불일치에 비교하여

순수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관습이나 습관으로 하지 말고, 감정적, 의지적, 그리고 본질적 조화로 단합을 이루도록 간청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 에베소서에 있었다. 그때 그는 당시에 고린도(아마도 엔그리아의 항구 도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에서 동쪽에 있는 아시아의 로마 영역과 에베소의 큰 도시로 여행하던 고린도 사람들을 맞았었다. "글로에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챤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1:11).

바울이 중요시 생각하는 주제는 설교가가 아니라 설교 내용 자체였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설교가 중심으로 분당을 짓게되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그런 분당을 만든 그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했고,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들은 물론 사도들까지도 복음의 말씀위에 놓았던 것에 대해 실망했다. "나는 바울에게" 또는 "나는 아볼로에게" 또는 "나는 게바에게(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안에 불필요한 분열을 낳게 되었다 (고전 1:12). 더욱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밝힌 네 번째 그룹마저도 실망을 표했다. 아마도 이 마지막 그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아주 심한 은사주의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 특성이 무엇이든간에 이 그룹도 바울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배운 그런 것이었다.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을 때(참조 고전 9:1; 15:8; 갈라디아서 1:16), 바울은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답했다(사도행전 9:5). 그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도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바울은 답이 뻔한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면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을 찾았다(1:13).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라고 물었다.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는가?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체로 분당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도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 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불여겼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참조 사도행전 22:16; 야고보서 2:7; 마태복음 28:1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요술처럼 단지 성육신으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의 이름, 생명, 죽음, 그리고 부활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진 친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스도로 시작된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이다.

침례를 침례한 사람마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었다. 몇몇 사도들만 존경했던 것 고린도 교인의 성향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났던 스테바나 집 사람 말고는 고린도교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기뻐했다 (고전 1:14-16). 바울은 그가 위의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에 감사했는데, 절대로 침례가 중요하지 않아서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1:15).

그렇게 중요한 침례인데도 복음의 선포의 중요성에 비교할 때 바울이 침례를 자신의 중심적 사명으로 인식할 만큼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바울의 이름으로나 침례 사역자로서 바울이 대신하는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유케하며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능력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1:1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고린도교인들은(1:4)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1:5),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에 참예함으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1:7). 그들 속의 사소한 말다툼과 논쟁에 관여하는 해야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선호하는 설교자들에 대한 그들의 미성숙한 감정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름 받은 일을 깨뜨려버렸다. 이러한 감정은 교리적 경험적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적인 교제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복음의 의미를 축소시켰다(1:17).

질문

- 침례교인들은 종종 "개 교회 자치권"에 대해 언급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1:2절에 언급한 바울의 설명은, 혹시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들 속의 연합과 교제에 대한 주제들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 1:8절 말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표현을 사용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성경 용어사전을 참조하라) 당신은 그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 고린도전서 1:10절과 빌립보서 2:1-2을 비교해 보라.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합리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갈라디아서 1:6-9 또한 참조하라.

[보충]

바울 편지의 서두

이전에 쓴 바울 편지의 서두 또한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바울은 당연히 헬라 편지 형식인: 저자, 수신자들, 안부, 그리고 기도로 편지를 썼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교리적인 내용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에 주목하라. 더 나아가 변함없는 기본적인 서두를 채우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내용은 우리에게 편지 후반에 제시될 아주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암시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내에, 서두에 연합(1:2), 은사(1:4-7), 거룩(1:2,8),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1:7-8)을 다룬 것 등이다.

편지의 주제를 설명하는 습관은 바울의 다른 편지 서두에서도 볼 수 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주제가 암시적으로 언급되었다(로마서 1:2).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론했다(고후 1:3-7). 바울의 편지 중에서

유독 감사의 기도가 없는 갈라디아서 또한, 자신의 복음과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바울의 격력한 변론을 예시했다. 갈라디아서 서두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사도였다는 것을 1:1절에 거의 화를 내며 주장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의 서두들도 언급될 수 있으나, 중요한 주제에 주목하기 바란다.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 의미있는 서두에 유의하라.

[제 2 과]	<h1 style="margin: 0;">십자가를 기억하라</h1>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고린도전서 1:18-2:2</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학습 주제</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동료 크리스챤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갖게 해준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탐구 질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크리스챤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설자리는 어디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학습 목표</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동료 크리스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한다.</p>	

들어가기

고린도전서 15:1-11절에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복음의 정의를 담고 있다. 15:3-4에는 복음의 정의를 뜻하는 의미가 네 개가 있다. 이 의미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를 죄로 얹누르고 있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 돌아가신 유대인의 메시아("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2)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3) 성경대로 죽으신 후, 사흘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4)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까지도 살아서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한 사실들이다.

이 네 개의 의미들과 함께, 만약 고린도전서 15:3-4절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라면, 본과의 핵심 본문인 고린도전서 1:18-2:2절에는 복음에는 복음에 대한 부가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복음: 멸망하는 자와 미련한 자 (1:18-25)

본문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부가 설명은 "십자가의 도"이다 (1:18). 본문에 나온 "도(word)"란 말은 정확히 말씀이란 뜻을 의미하며,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다. 바울은 분명히 이 짧막한 "십자가의 도"란 말을 복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 바울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선포했다는 것은 그들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단지 십자가를 가리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십자가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당면한 논쟁과 연관이 있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바울 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 복음을 요구했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들을 따르는 고린도인들에게 지성주의로 빠지게 했다. 고린도의 분열을 낳게 된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최고"의 설교자들 세우려는 일들 때문에 일어났다. 따라서, 고린도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등한시 해버렸다.

본문에서 바울의 전략은 반대자들과 당시 자신들의 큰 실수로 당파를 짓게된 잘못 인도된 사람들과 맞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 우둔함, 그리고 굴욕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광채를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일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이셨을 때,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명철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 그리고 귀족풍의 사람들의 노력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십자가에 못박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통한 구원은 우리들 속에 있는 오만함과 강인함과 맞서게 된다. 십자가는 먼저, 진정한 구원은 분명 하나님에게 온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 특히, 인간의 지혜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식에 의한 분열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경험하게된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줄 하나님의 재 창조적 힘이다(1:18). 이와 같은 인간의 거부 자체가 바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이사야 29:14절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고 예언했다(고전 1:19).

세상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과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궁휼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의 능력과 최고에 대한 인간의 허무함에 대한 발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길은 행동(예수님의 죽음)과 말씀("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다. 이해동과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동시에 인간의 최고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1:21).

이러한 구원의 길은 인류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다. 능력있는 기적과 이적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1:22). 헬라인들과 그들의 위대한 학자들의 역사는 그들로 "지혜를 찾게" 했다 (1:22).

믿음으로 겸손히 복음인, "십자가의 메시지",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1:18),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약함과 우둔함의 징후와는 거리가 멀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이셨던(1:24)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고린도인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궁휼에 천한 것들(1:26-31)

십자가를 자신의 "미련함" 그리고 "약함"으로 선택함으로 구원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궁휼을 거부하는 자들과 수용하는 자들로서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보여주었다고 상기시켰다. 복음서를 통해 고린도인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지혜자, 강한자, 또는 귀족을 택하지 않았다. 반면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1:27). 고린도 교회는 고등 교육 배경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정치적으로 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육이나 능력으로도 그들은 "귀족 사회"와는 별개였다. 교회의 구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없는 것들"을 통하여 효과적인 구원을 얻을 전략을 보여주었다(1:28).

따라서, 미련하고 사회적으로 품위가 저하된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양식을 흉내낼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상기 시킨 것과 같이, 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로마서 12:2). 오히려, 크리스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들로 십자가와 꾸밈이 없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진짜 본질 가운데,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1:28). 십자가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결론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1:29). 고린도인들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되며, 사도들도 자랑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당연히 교회의 그 어떤 성도나 그룹도 다른 그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참조 1:17).

결론: 십자가의 약함은 설교할 때 단순성을 요구한다(2:1-5)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약하고 미련한 메시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의도적으로 메시지 본문과는 별 상관없는 그런 스타일과 형식의 설교를 사용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 왔을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2:1).

바울은 단순한 수사학적 스타일로 설교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런 스타일로, 그는 말씀의 내용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그리스도" 만을 강조하려고 했다(2:2). 이미 입증된 수사학과 응변술을 통한 이러한 설교는 절대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설교는 복음 자체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마치 첫째 날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설득력이 있게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이다(2:4). 따라서, 고린도인들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2:5).

질문

1. 1:18-2:2에서 바울이 "복음"이란 단어와 비슷한 말로 사용한 다른 단어나 문단들을 무엇인가?
2.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재물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교회들의 자연적 현상이다. 이러한 관심사들이 1:26-28절에 나온 바울의 설명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3. 2번 질문을 토의한 후에, 교회의 지도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충]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

고린도전서 1:30절에, 바울은 우리가 종종 오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속"을 구원의 초기 행동 그리고 구원의 최초 경험 후에 나타나는 크리스챤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으로 "성화"라고 가리킨다. 더 나아가, 여기에 "의"로 번역된 단어는 의로움을 가리키며, 또한 구원의 최초 행동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의로움, 구속, 그리고 성화는 비록 강조하는 면은 달라도 모두 구원의 완전한 경험을 의미한다. "의롭게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신실한 하나님인 그분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언약의 내포하고 있다. "구속"이란 말은 소유에 대한 의미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땅이든 노예든 값을 치뤄야 하는 것이다. 구속은 땅이나 노예를 매입가격을 지불하고 "되찾기" 위해 제 삼자가 개입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구속자 이시기도 하며 구속자로 남으셨다.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섬기도록 하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화는 구원의 최초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도록 변화시키는 구원의 계속적 과정을 가리킨다. 각각의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

[제 3 과]	<h1 style="margin: 0;">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h1>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핵심본문 고린도전서 2:14-3:16	<p>학습 주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것과 순종하려는 태도, 자신과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으로 드러난다. .</p> <p>탐구 질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p> <p>학습 목표 내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해 본다.</p>

들어가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던 질투와 다툼은 교인들의 영적, 도덕적 판단력을 흐려놓았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는데 있어서 사도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자만심과 자존심 강한 엘리트주의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 그들이 서로 선호하는 사도에 대한 논쟁이 교회 가운데 분란을 가져왔다.(고전 1:11-12) 이 분란은 회중 가운데 어떤 이들을 세상 적인 판단으로 이끌었다.(고전 1:29, 3:21, 4:6-7에 나타난 여러 형태의 자랑에 대해 주의해서 살펴보라) “질투”가 “다툼”을 가져왔고, 다툼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논쟁을 불러왔다. 이 논쟁은 어느 사도가 더 큰 사도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 사도를 지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위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고린도인들은 지도자에 대한 빼뚤어진 기준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타락한 관점 (2:14-3:4)

고린도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와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 비난했던 것 같다.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 그 당시 유행하던 헬라 응변가들의 유창함이 결여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뛰어난 교사인 아볼로와 비교되어 보였을 것이다.(행18:24) 따라서 어떤 이들은 바울에 비해 아볼로가 우월함을 자랑했으나 바울은 사도들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자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전3:7) 실제로 한 사도보다 다른 사도가 우월하다고 정하는 데는 그들만의 일련의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메시지 자체를 떠나 응변이나 연설능력을 판단기준으로 삼거나 논쟁의 근거가 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기준으로 여겨졌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2:14)이라고 불렸을 때의 기준은 옛 생활에 빠져있는 개인들을 향한 말이었다.

바울은 “이 악한 세대”(갈1:4)가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후 5:16-17)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고전 15:20-23)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즉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새 피조물 가운데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로마서 8:15-16,23)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타락한 가치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바울의 교리를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돌리심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옛 질서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며, 영의 세계나 새 질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영적인 문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영적 생명에 대해 그들이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영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고전 2:14)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져야만 한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교인들인 “영적인” 사람을 가르치듯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3:1) 상태에 있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 분별력은 그들이 한 때 속했었던 “육신에 속한 자”(3:1)와 같았던 것이다.

전에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의 초보에 대해 말 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었다.”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었다.(3:2) 지금의 분란과 행위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들은 아직도 더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해”(3:3) 있으며 그 증거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것을 들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충분히 성숙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의 연설에 능하지 못함을 들어 바울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영적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그들이 옛 성품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군들,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적절한 관점 (3:5-16)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에 대해서 미성숙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밭으로 비유했다. 바로 그 밭에 바울이 먼저 복음을 “심었고”, 후에 아볼로가 씨앗에 “물을 주었다”(3:6), 두 사람 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다(3:5). 주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을 택하셔서 차례로 사용하신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인한” 아버지와 같았다.(4:15).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고, 바울의 뒤를 이은 아볼로는 고린도인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씨앗에 물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3:6)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비교하여 볼 때, 물을 준 아볼로나 씨앗을 뿌린 바울의 사역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3:7) 고린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헌하심이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3:9)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비유에서 바울은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뒤를 이은 다른 사역자들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은 바울이 닦아놓은 복음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모두에게 바울은 경고하기를 “각각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3:10-11) 이 기초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3:11)

한 건물로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비유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놓여질 빌딩의 각기 다른 재료들(가르침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등,”(3:12)에 대해 설명한다. 바울의 설명이 계속됨에 따라 “금, 은, 보석”등은 건전하고 건강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가르침들이 주의 심판의 때에 정결케 하심과 불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무, 풀, 지푸라기”는 경고하지 못한 건물임을 드러내 준다. 그리하여 그 날에 불에 타버려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3:13) 주의 날은 주의 심판 날이 될 것이며, 각자의 공력이 검증되고 참 성격이 드러나는 계시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거나 하나님의 집에서 건축자로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심판날이 임하여서 불의 심판을 견뎌낼수 있으면 건축자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마련이다.(고전 3:1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이 “다 불타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3:15)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은 일차적으로 부름 받고 앉수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 마지막 날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심판을 말하는 본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후 5:10)

오늘을 위한 적용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다툼, 시기(질투), 복수심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다. 첫째 과에서 우리는 교회의 당파에 대한 바울의 염려를 보았었다.(1:11) 이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설명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복음이 선포 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바울은 믿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현재의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가능케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결코 세상의 잣대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다. 마치 농부나 건축가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집을 짓는 역할을 한다. 밭이나 건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지는 사역이며,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장차 의로운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로마서 13:13)처럼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야 한다.

질문

1.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이 믿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표시들은 무엇인가?
2. 그리스도인들도 심판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5:9-10절의 말씀을 보라.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3.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3:3)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3:1)이며 “육에 속해”(3:3) 있다고 선언한다. 그들이 비록 구원받고 새 피조물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죽어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는 육에 속한 삶의 모양이 남아 있는 행위, 혹은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마치 물리적인 학대가 신체와 정신의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이, 구체적으로 시기심,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2:14-16) 우리의 영적,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실패의 예를 들 수 있는가?
5. 오늘의 핵심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성품들은 무엇들인가?

보충

농사와 건물, 공통적으로 혼합된 비유

고린도전서 3:6-9에 바울은 농사에 관한 예화를 사용한다. 그는 고린도인들을 밭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3:9-17에 그는 건물에 관한 비유로 바꾼다. 이 두 비유는 초대 교회에서 설교로 가르침으로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21-22에 바울은 벌딩과 자라나는 식물의 비유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배적인 은유는 구약성경에서 성전 예언이 신약에서 교회로 성취된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과 비슷하다. 에베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위에 세워진 것이며,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고 했다.(엡 2:20-21) 이 건물이 “주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말이다.(엡 2:21) 비슷하게, 골로새서 2:7에서도 식물과 건물이 혼합된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곡히 권하기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너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안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으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 불렀으며, 그의 백성들로 부터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제 4 과]	<h2 style="margin: 0;">섬기는 지도력 연습</h2>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p style="margin: 0;">핵심본문</p> <p style="margin: 0;">고린도전서 4:1-14</p>	<p>학습 주제</p> <p>교회의 사역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성장할 수 있다.</p> <p>탐구 질문</p> <p>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p> <p>학습 목표</p> <p>성도와 교회지도자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p>

들어가기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의 역할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바울을 복음의 아비로 모방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권고한다.

바울이나 아볼로를 인하여 서로 자랑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의 습관이 그들을 “질투와 다툼” 가운데로 이끌었다.(3:3) 바울은 이러한 결과가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의 증거로 보았다. 이러한 연고로 그들은 견고한 영적 진리를 받을 수 없었으며(3:21)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었다.(2:14-16)

이런 상황들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나 아볼로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믿게된 사역자로 받아드려졌다. 만일 고린도인들이 밭이라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만일 고린도인들이 건물이라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은 뛰어난 건축가이며, 구조물에 사용되는 금, 은, 보석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으로서 고린도인들이 점차 지어져 가는데 사용될 귀한 재료들이다.

교회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4:1-5)

청지기는 반드시 “충성스러워”야 한다.(4:2) 충성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청지기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자신에 대한 평가도 바울에게는 작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바로 서든지 떨어지든지 할 것이다. 이런 바울의 관점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도록 이

끌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평가에 비하여 바울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졌을 뿐이다.(4:3)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4:4)고 고백한다. 그러나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한다. 그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4:4)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의 위치와 효용성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면추라고 권한다.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말한다.(4:5)

바울의 전체적인 견해는 이 세대뿐 아니라 장차 다가 올 시대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과 심판을 동시에 시작하셨다는 바울의 믿음은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지배하고 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에 대한 비판이나 칭찬이 그의 행위에는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사명을 받았고,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생명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주님 그분이시다. 각 사람에 대해 칭찬 혹은 비판하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4:5)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4:6-14)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사도의 지위와 사역에 대한 그의 설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권면은 많은 부분 자신과 아볼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권면을 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역자로 인하여 자랑하고, 다른 사역자를 반대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했다.(4:6)

사실상 자신들이 선호하는 설교자를 인하여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미성숙한 의도를 위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자랑은 한 특정한 사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룹의 오만함과 우월감을 명목상 그들이 선호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꾸미고자 함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뚫어 보고는 묻기를(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그룹이나 개인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그들을 구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였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충성스러움을 인해 혜택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만하게 될 수 있단 말인가?(4:7)

분명한 것은 고린도인들의 깛주림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4:8)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후사에 속함으로 왕노릇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경험을 사용한 바울의 예화는 그들의 오만에 젖어 있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한 비꼬는 말로 이어진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다른 하나님의 일군이나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들 스스로 얻은 것처럼 믿고 있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리”(4:8)

격한 감정이 섞인 이 비꼬는 문장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거만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교회의 자기만족적인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역할을 정확하게 성취하게 만들었다고 선언한다. 사도들은, 다시 말하자면,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대를 받도록 정해졌다. 사도들은 “죽기로 작정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4:9) 그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게 동시에 “구경거리”가 되었다.(4:9)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사실상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오래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며,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행9:15-16, 14:21-22)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 그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골1:24) 도리어 그가 전하고자 한 바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도들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

사도로 사는 삶은 대부분 집도 없이, 험한 대접을 받는 삶이었다. 종종 목마름과 짚주림에 처하기도 하고, 헐벗고 업신여김을 당했다.(4:1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했다.(4:12)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육을 당하여도 축복으로 되 갔았다. 박해의 때를 당하여서는 참으며, 비방을 당할 때 오히려 권면 하였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리석은 자 되는 것에 지나쳐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그들의 사도직분 수행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4:9-13)

오늘의 적용

비록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가 결정적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목적은 구속적인 것이다. 그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 교회의 거룩과 일치, 그리고 이 세대와 앞으로 임할 시대에 대한 적절한 관점 등에서 자신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본 받도록” 간청하고 있다.(4:16)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었다. 바울은 희망하기를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꾸짖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과 친절함 가운데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했다. 그가 선호하는 것은 훈련의 매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했다.(4:19-20) 이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책망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할 것인가는 그들의 몫이었다.

질문

1. 이 세상에서 이룩한 성공의 표시는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 측정되는 성공의 표시와 바울의 사도에 대한 4:9-13을 비교해 보라. 우리는 어떻게 가장 높은 기준과 성공의 표시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고 살수 있는가?

2.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불렀다.(4:15)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설 명 가운데 부모와 관련된 속성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4:3)고 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평가가 당신의 행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4.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의견을 바꾸기 위해 고전 1-4 장을 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 (1)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 (2) 주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보충

이력서, 고난 그리고 더 큰 고난

미국 문화에서 이력서와 추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서를 처음 고안해내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1에서 추천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우는데 있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적어도 3 군데 본문이 있는데 거의 다 고린도교회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바울의 이력서에는 자신의 성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 대해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린도전서 4:9-13, 고린도후서 6:4-10, 그리고 고린도후서 11:16-33을 비교하여 보라.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 7년 동안 교회의 신비스런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신학체계이다. 여기서 휴거는 이 땅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는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된다고 한다. 이런 종말론에 따른 몇몇 유명한 소설도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7년 전에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더 나아가 고난이 닥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올림 받는다는 주장이 성경적인 뒷받침이 없어 보인다. 바울은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고난에 참예하고 있다고 믿었으며(골 1:24), 사도로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위에 언급된 ”이력서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를 때 주어졌던 고난을 그가 어떻게 견뎠는지에 대한 긴 설명으로 이것을 그가 사도 됨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약 성경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할수록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사도로서 바울의 경험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수님 역시 가르침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그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펉박하였으니 너희도 펉박할 것이요”(요 15:20)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제 2 단원	세상 속에서의 삶
<p><u>제 5 과</u> 부도덕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 고전 5:11; 6:9-20</p>	<p>사도 바울은 21세기에서도 훌륭한 목회자-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 도덕적 필요를 채우도록 잘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긴 편지 중의 하나인 고린도전서는 부도덕한 세상에 맞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부도덕, 이혼, 깨어진 가정의 어려움 등과 대항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p>
<p><u>제 6 과</u> 결혼 -선? 독신 - 선? 고전 7:1-17, 25-35</p>	<p>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로서 기원전 44년에 재건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그리스 이스마스에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있었다. 고린도는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 고린도는 대중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다. 상업의 도시였고, 이스마스 올림픽 게임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이 도시로 와서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또 항구 도시였고 선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죄가 너무도 만연하여 교활하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 “고린도인 같다”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였다. 부패와 타락을 표현하는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고린도는 또한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고 이방 종교들이 번창했던 곳이었다.</p>
<p><u>제 7 과</u> 삶의 애매한 부분과의 싸움 고전 8:1-13; 9:19-26; 10:14-31</p>	<p>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키고자 했다.(행18:4)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했다.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행18:2)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함께 했었다.</p> <p>고린도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린도에서 약 18 개월 동안 설교하고 가르친 다음, 바울은 에베소로 이동했다.(행 18:11, 21)</p>

[제 5 과]	<h1 style="text-align: center;">부도덕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h1> <p style="text-align: center;">(학습공과)</p>
핵심본문 고린도전서 5:1-11; 6:9-20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p> <p>탐구 질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p> <p>학습 목표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 해보라. 그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p>

들어가기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예쁜 리본을 붙이고, 특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해 두고, 우리 자신은 일상 생활의 일정을 따라 (구원과 상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부도덕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도덕관과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것은 힘든 일이었다.

특급 우편 (5:1-5)

바울은 일부 성도들의 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고린도 교회가 부끄럽게 여길 “특급” 뉴스를 전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상처를 입힌 것이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뎌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1절에 따르면 이 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로 보인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흥미있어 할 그런 종류의 뉴스였다. 바울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런 죄악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한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5:1) 아마도 이 여인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계모일 것이다. 이런 진저리 나는 상황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이 구절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이 문제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다.

이제 바울의 공격은 교회에게로 옮겨간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5:2)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으로 묵인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신다. 많은 교회들이 부도덕함을 권장하지 않는다. 성도들 간에 서로 수군거리거나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겨버린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가 묵인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제는 깨어져 버렸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도덕함을 고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5:3-5은 이 부도덕한 사람을 사탄의 손에 내어 주었다고 바울은 선언한다. 먼저, 바울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음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의 영혼과 권위는 같이 있다고 주장한다.(5:3)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판단한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증거한다.

이제 바울은 교회에게 부도덕한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약을 행한 자에 대한 정죄함에 있어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설명한다. (1) 영으로 바울이 함께하는 것, (2)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는 것, (3) 교회 자체의 임재함.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 정죄했어야만 했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5:5) 교회는 자만을 벼리고 바울의 지침을 따라야만 했다. “사탄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가지 가능성은 이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사도행전 5:11; 13:9-11에 언급된 대로 징계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런 본문은 역시 디모데전서 1:20에서도 나타난다. 무슨 의미이든 간에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다.(고전5:5) 고린도후서 7:9-12에 따르면 바울과 고린도교회가 행한 치리가 적절한 효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 (5:6-11)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교회에게 권면한다.(5:7) 아마도 그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쓸어내 버리는 유월절 관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출 12:15) 바울은 교회의 대다수가 누룩이 없이,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임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양임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도덕함 가운데로 이끄는 유혹은 늘 그들 주변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들과 늘 함께 계신다.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

5:9에 바울은 이전에 그들에게 부도덕함에 대해 적은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구절은 이 구절 바로 직전의 본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견해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울이 이전에 보낸 다른 서신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5:9-11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울은 자신이 결코 고린도 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이야기하거나 친구로 지내는 것을 금하려 함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한꺼번에 떠나야 할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이다.

교회 밖에서 경건치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동시에 바울은 상기시키기를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부도덕으로부터 깨끗케 되도록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교회가 허용한다면, 교회의 증거가 약해질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당신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6:9-1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살 수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한다.

바울은 성적 부도덕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성적 부도덕은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교회 자체에 상처를 준다. 고린도 교회와 지금 내가 속한 교회와 도시는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된 것들이 다 다루어져야 함을 가르쳤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9-11에 음행하는 자에서부터 토색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목록을 일일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러한 부도덕함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따라야 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을 11절에서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타락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슬픈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이미 씻음을 받았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6:12-20)

계란 한 줄이 5센트, 휘발유 1갤런이 10센트, 영화 관람료가 5센트, 그리고 맛있는 햄버거가 세 개에 25센트 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절대로 가격표를 붙이고 말하기를 ‘이것이 제 값이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내 인생, 내 아내를 향한 내 사랑,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는 나의 구원 등은 절대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사실 그리스도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바 된 것을 회상시켜 준다. 나는 죄인이었고, 사탄을 섭기고 있었으나, 예수께서 갈보리의 죽음을 통해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본문의 주된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행동의 주인 되신다.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한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영적인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린도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관점들을 듣기는 좋으나 영적으로 그릇된(6:13) 단순한 말로 변호했었다. 바울은 이교적인 행습과 유대인의 율법을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나누셨던 원칙들(막 7:14-23)을 제시함으로 정

리한다.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행위가 부정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배(육체)와 음식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더 강조한다.(6: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음행을 위해서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죽음 후에 부활을 위해 주셨다. 부활로 나타날 몸이 부도덕한 일에 사용되어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도덕함의 타락상을 설명한다.(6:15-16)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둘째, 성적인 부도덕의 죄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모순이 된다. 셋째, 결혼 밖의 성적인 관계는 영적인 연합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비싸다. 그러나 가장 비싸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다.(6:19)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장소이다. 그리스도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장소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질문

1.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들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이 다른 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다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2.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에 빠질 때,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인가?
3.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을 심각하게 대처하기 위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가?
4.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 우선적인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보충

교회의 기강

세기 전에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징계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갖고 있었다. 징계는 죄에 관련되었다고 믿어지거나,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잘못들 그리고 교회에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성도 중 한 사람이 주일에 여행을 하려면 그 사람은 교회의 허락을 맡아서 가야만 했다. 만일 교인이 허락 없이 결석하게 되면,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고 “그들의 교훈을 얻도록” 근신해야 했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에는 목회자나 교회의 서기로부터 직접 쓴 추천의 편지를 가지고서야 다른 회중 가운데로 갈 수 있었다.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특별 모임도 열리곤 했었다.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제 6 과]	<h1>결혼 -선? 독신 - 선?</h1> <p>(학습공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전서 7:1-17, 25-35</p>	<p>학습 주제 독신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한다.</p> <p>탐구 질문 어떻게 독신과 결혼한 사람이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p> <p>학습 목표 독신과 결혼생활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p>

들어가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나무를 사랑한다.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나는 그림을 사랑한다. 나는 바둑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의미 있고 힘있게 사용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에 관련되었을 때이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겨두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들을 답해주고 있다(7:1,25절을 보라). 이 질문들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질문이었다.

결혼 - 선?(7:1-9)

바울이 대답한 첫 번째 대답은 결혼에 관한 것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만일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면 그들은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유대 문화권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것이다.

그는 바로 이어서 결혼이 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의 동거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독신으로 머무르는 것이 자칫하면 성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신자들이 결혼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속한 것이다.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잠정적으로 성생활을 멈추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이것은 오직 그들이 기도를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결혼생활을 위해 성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울은 독신남이었다. 우리는 그가 결혼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가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바울의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혹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아내가 그와 헤어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기에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권리요 명령이 아니라.."(6)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 그리고 홀아비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여전히 그들은 만일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유혹에 빠진다면 재혼하는 것이 더 낫을 것이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7:10-17)

바울은 주님의 권리를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었다. 바울은 아내는 남편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만일 그녀가 떠난다면 그녀는 재혼해서는 안된다. 여인들은 바울시대에 합법적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독신으로 살거나 혹은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다.

바울은 남편도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남자는 합법적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바울은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주를 믿는 배우자는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도 또한 축복이 될 것이다. 아마도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혼해야 한다. 만일 그런 배우자와 한 집안에서 살게 된다면 그 가정은 불화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독신 - 선?(7:25-35)

바울은 이제 독신 남녀들에게 말한다. 바울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이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면이요 생각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결혼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새로운 문제들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라고 덧붙인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한 가운데에 놓기를 원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독신남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에이미 카미클은 선교사였다. 그녀가 젊었을 때, 몇 명의 남자들이 청혼을 했었다. 기도를 한 후 그녀는 자신이 독신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독신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인도에서 55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했다.

빌 월러스는 독신의 소명을 받았음을 느꼈다. 그는 17년 동안을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했다. 중국 공산당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가 첨자인줄 알았다. 그들은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교사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들의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했다.

남편들과 아내들도 또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은 동역자인 것이다. 그들은 삶과 사역을 나눈다. 그들의 헌신과, 결혼과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한다고 여러번 말한다. 독신 혹은 결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질문

1. 결혼한 사람이나 독신이나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2. 21세기의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비교되는가?
3. 독신남녀들에 대해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독신들을 위한 성경공부반 혹은 소그룹 모임이 있는가?
4. 만일 당신의 교회가 독신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충]

독신들에 대한 사역

오직 결혼한 사람들만 교인이 될 수 있다거나 혹은 오직 독신만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바울이 믿었다면 그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만 한다.

[제 7 과]	<h2 style="margin: 0;">삶의 애매한 부분과 씨름</h2>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핵심본문 고린도전서 8:1-13, 9:19-26; 10:14-33	<p>학습 주제 비록 어떤 행습이 명백히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을 삼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p> <p>탐구 질문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애매할 때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가?</p> <p>학습 목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애매한 삶의 영역과 대처할 수 있는 원리들을 본문에서 발견한다.</p>

들어가기

그리스도인은 R 등급의 성인영화를 봐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일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 남자가 귀거리를 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몸에 문신을 해도 되는가?

성경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찾아보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지식: 그것이 전부인가?(8:1-13)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들은 우상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의 신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신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제사로 바쳐진 고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사실 가장 좋은 고기가 이러한 우상들에게 바쳐졌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혼동이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고기를 먹는다면 그 고기는 그에게 죄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체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시험에 든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인이 종이 되다(9:19-26)

바울은 자유로운 로마 시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종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자유인이 종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 하지만 그의 종이 되는 곳에 위대한 자유가 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다. 우리의 영혼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기쁨과, 평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

바울은 바로 이 것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더욱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다고 말한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힘든 경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 이 땅의 경주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땅의 상은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상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얼마나 놀라운 상들인가!

이교도의 축제인가 아니면 주님의 만찬인가?(10:14-22)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의 가정에서 먹었다. 오늘날은 주의 만찬을 교회에서 먹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위하여 포도 열매(포도 주스)를 사용한다. 또한 그분의 몸을 상징하기 위하여 빵을 사용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한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값어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한다.

구약성경에서는 동물들이 용서를 얻기 위해 바쳐졌다. 오늘날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동물들이 제단에 바쳐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것을 참된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바쳤다. 이러한 관습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들은 이교도의 관습들을 따라서는 안되며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겹하여 참예치 못하리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극성 화학물질," "휘발유"라고 표시한 트럭을 향하여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불신자의 식사초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10:23-33)

만일 불신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스도인을 초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가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었다. 단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것을 먹기를 꺼려한다면 그들은 먹어서는 안된다.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초대한 가족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다면 역시 먹어서는 안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것이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다.

애매한 영역에 대한 지침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행 15:29).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바울의 지침을 복습하라. 특히 고전 10:31--11:1절을 주의 깊게 숙고하라.

질문

1. 당신은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a) 당신의 자유를 주장하는가? (b) 성경적인 대답을 구하는가? (c) 당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가?
2. 당신은 위의 반응들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가? 아니면 더 좋은 대답들이 있는가? 그것이 항상 효과가 있는가?
3. 당신은 개인적인 자유에 근거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사랑으로 결정하는가?

[보충]

결정하기

몇 년 전에 나는 스페인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다. 우연히 나는 그 교회의 성도가 초청한 저녁식사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집주인이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포도주를 밀쳐 놓았다. 그 성도들은 내가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들은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언급했다. 스페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라고 믿는다.

당신이 나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제 3 단원	교회생활
<p><u>제 8 과</u> 우리의 예배 고전 11:2-16</p> <p><u>제 9 과</u> 이것이 주의 만찬인가? 고전 11:17-34</p>	<p>바울의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드러내준다. 그들은 목사가 없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언제든지 그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회 건물도 없었다. 그들은 가정이나 혹은 사용 가능한 어느 건물에서든 만났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다. 바울은 그들과 18개월을 함께 지냈다. 그는 머무르는 동안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떠났다. 아마 새로운 신자들이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바울은 그들 모두를 돋기 위해 편지를 썼다.</p>
<p><u>제 10 과</u> 당신은 은사를 받는다 고전 12:4-31</p> <p><u>제 11 과</u> 가장 위대하게 살아가는 법 고전 13:1-13</p>	<p>바울의 편지는 교회생활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또한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울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몸의 비유를 듣다. 바울은 사람이 모든 은사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의 하나인 것이다.</p>
<p><u>제 12 과</u> 예수님을 선포 고전 14:1-25</p>	<p>바울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서신을 마무리 한다. 그의 서신은 격려의 말로 끝맺는다. 그는 부활은 모든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임을 상기 시킨다.</p>
<p><u>제 13 과</u> 부활의 소망 고전 15:3-20, 35-44, 50-57</p>	

[제 8 과] 핵심본문 고린도전서 11:2-16	<h1 style="margin: 0;">우리의 예배</h1>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p>학습 주제 남자와 여자가 예배 가운데 행동하는 양식은 그들의 문화에 덕을 끼쳐야 한다.</p> <p>탐구 질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가장 좋은 덕을 끼칠 수 있을까?</p> <p>학습 목표 예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참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p>	

들어가기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논쟁이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바울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한 문제를 다룬다.

성서적으로 예배드려라(11:2)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들은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원리를 열심히 따르려고 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11:3)

이 구절은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구절 중의 하나이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11:3). 여기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자에 대해 남자가 선천적으로 우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대 문화권에서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다. 만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갈라디아서 3:28절 고전 11:11절을 참조하라).

개다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만일 그가 그리스도가 본래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요한복음 1: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한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이다.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를 고려할 때 여자도 분명히

예배 가운데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배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는 적합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모두 동등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한 “머리”에 대한 가장 적합한 의미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혹은 “순서,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통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언급한다(창 2:21-24). 남자는 여자의 생명의 근원이었다.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골 1:16).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골 1:15)이시기 때문이다.

베일을 벗어야 써야 할 것인가 벗어야 할 것인가?(11:4-6)

고린도에 교회에 있는 어떤 여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았다. 그 여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베일을 쓸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인들은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가려야만 했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적합하게 행해야만 했다.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으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린도에서 오직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만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았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베일을 쓰고 있지 않은 여인들을 교회 안에서 보았다. 그들은 그 여인들이 창녀인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은 베일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만일 여인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을 거부한다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라고 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인들도 자신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베일을 써야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다.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어떠한 남자도 자신의 아내가 창녀로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역시 그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교훈이 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10:24)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증거를 보여주도록 행동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중동 국가들의 여인들은 머리를 가린다. 이 나라들에 가는 여자 선교사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과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머리를 가리운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중국식의 옷을 입었다. 우리의 옷과 예배는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11:7-16)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다.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창 2:22).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출산하는 지극한 영광을 주셨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여인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이다. 여인은 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11:11).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가! (당신도 알지 않는가!)

바울은 이러한 그의 가르침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것은 자신의 가르침을 확인했다. 그는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에 동의했음을 알게 했다.

질문

1. 당신 교회의 예배를 성경에 비추어 평가하라. 어떤 요소들이 초대 교회의 모델고 흡사한가? 어떤 것들이 의구심을 일으키는가? 당신 자신의 예배를 이러한 기준들로 평가할 때 어떠한가?
2.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당신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는가?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3.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역동적인 믿음을 원한다. 하지만 분열과 분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에 독이 될 수 있다. 당신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이러한 분열과 분리가 있는 곳이 있는가? 당신은 이러한 것을 화합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신 교회의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 그들은 귀한 손님으로 초대되어졌다고 느끼는가? 당신 교회의 예배 인도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계획하는가?

[보충]

성경에서 여인들이 설교했는가?

성서 용어 “예언”은 설교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많은 여인들이 예언을 했고 이 일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전문적으로 일한 여인들이 나온다. (참조: 창 15:20; 사 4:4; 왕하 22:13; 뉴 2:36; 행 21:9).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공적인 예배에 여인들이 기도하고 예언(설교)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전 11:5).

그렇다면 바울이 후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께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고전 14:34)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그 배경을 말해준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14:35). 여기서 바울은 예배 가운데 자꾸 질문을 던짐으로써 방해를 하는 여인들을 다루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여인들도 부르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제 9 과]	<h1>이것이 주의 만찬인가?</h1> <p>(학습공과)</p>
<p>핵심본문 고린도전서 11:17-34</p>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고 존중함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지를 상기할 수 있는 주의 만찬을 드려야 한다.</p> <p>탐구 질문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면 참된 주의 만찬이 되게 할 수 있을까?</p> <p>학습 목표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는다.</p>	

들어가기

만일 당신이 결혼했다면 왼손 약지를 보라. 거기에 왜 결혼반지가 끼여 있는가? 그것은 정말 오래된 관습이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여인에게 그러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 반지는 그 반지 자체 이상의 어떤 커다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만일 주의 만찬 의식이 아니라면 단지 빵과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결혼 반지를 어떻게 끼는지 배우도록 하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더 많은 문제들(고전 11:17-19)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듣고 매우 언짢았다.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다. 18절에서 쓰인 '분쟁'은 서로 찢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 시대에 이 단어는 나무를 쪼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서로 분쟁함 없이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사실 바울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지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작은 교회의 어떤 그룹에서 인근 선교를 시작하기를 원했다. 한 혼신된 그리스도인이 그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많은 토론 끝에 그 교회는 그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무런 분념이 없이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교회는 그 계획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그것을 총 책임자로 지명했다. 그렇다, 그 계획을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선한 영 가운데 그 리더쉽을 받아들였다. 교회는 그 구상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계획에 협력했다. 그는 그의 교회가 선을 이루는 일에 훌륭한 일을 해냈다.

식사교제와 주의 만찬(11:20-22)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원인은 주의 만찬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평범한 식사를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 어떤 이들은 너무 조금 가지고 왔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 이 식사문제가 주의 만찬의 의미를 훼손시켰다.

첫째로, 어떤 무리들은 서로 나누지 않고 자기만 자신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모일 때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그들은 당연히 배가 고팠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주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취해 있었다.

이 만찬은 신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식사 교제이어야만 했다. 그것은 이제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그것은 또한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 시켰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빙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11:22) 고 책망한다. 그러한 식사를 한 뒤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들이 이 일에 옳지 않게 행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최초의 주의 만찬(11:23-26)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빵을 들었다. 그는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쪼갰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했다. 주님은 그 빵을 먹으면서 자신의 희생된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잔을 드셨다. 그들은 감사를 드렸다. 그들 모두 그 잔을 돌려 마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그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마지막 날이었다. 다음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주의 만찬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먹는 법(11:27-29)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가장 힘있는 예배 행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덧 붙였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11:26).

바울은 주의 만찬을 올바른 영혼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어떤 이들은 빵과 포도주를 잘못되게 먹었다. 그들은 주의 죽으심을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먹었다. 이것은 올바른 영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28) 먹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주신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해 없이 먹는 자들(11:30-34)

바울은 그릇된 영으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11:30). 주님께서는 신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국으로 일찍 불러들이시기도 하는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영은 몸에도 해롭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형제들을 부른다. 그는 그들이 생각해보도록 고무한다. 또한 그는 주의 만찬 전에 먹는 식사를 집에서 하라고 조언한다. 주의 만찬은 일반적인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주의 만찬은 예배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식사와 연결되어 행하지는 않는다. 모든 교회는 얼마나 자주 그것을 행할 것인지 각각 결정한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하라는 명령은 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라.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인 "이 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25) 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과 집중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영혼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한다.

질문

1. 왜 사단은 한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공격하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한 몸 되게 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가?
2.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의 한 의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는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주의 만찬을 통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3.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은 불신자 친구에게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 당신은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보충]

주의 만찬에 대한 교파간의 견해 차이

천주교(로마 캐톨릭)에서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가르친다: 먹는 빵과 포도주가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들어 올릴 때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된다고 주장한다. 빵과 포도주의 겉모양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본질이 변했다고 주장한다.

루터교는 “양체 공존설”(consubstantiation)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에” 있다. 하지만 빵과 포도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장로교는 “실재론”(real presence)를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그 식사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고 가르친다.

몇 가지 이유로 침례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이 것은 나의 몸이다”(11:24)고 말씀 하실 때 육체 가운데 계셨다. 그는 자주 자신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만찬을 상징적 식사를 먹는 유월절 기간에 제정하셨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은 이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후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제 10 과]	<h1>나의 은사</h1> <h2>(학습공과)</h2>
<p>핵심본문 고전 12:4-31</p> <p>학습 주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은사를 내려주신다.</p> <p>탐구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p> <p>학습 목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지 결정한다.</p>	

들어가기

사람이면 누구나 선물을 받고 싶어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성령님은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물을 예로 듣다. 우리는 물을 마신다. 물은 열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증기는 또 하나의 물의 형태이다. 우리는 물을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어떤 형태의 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즉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하지만 여전히 오직 한 하나님인신 것이다.

성령님은 각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많은 사역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우신다. 그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게 도와주신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은사들(고전 12:4-11)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신자들은 한 두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받는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아홉 가지의 은사들을 나열한다. 다른 은사들은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헤아린다면 약 열 여덟에서 스무 가지의 은사들이 성경에서 언급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은사란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천부적인 재능들이 성령의 은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마할리아 잭슨(Mahalia Jackson)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가수였다. 그녀는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가스펠 송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마할리아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다른 노래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정중히 그 요구를 거절했다. 그녀는 살동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 그녀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격려를 가져다 주는 찬양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 바울이 처음에 언급한 두 가지 은사들은 말씀에 관한 은사였다.

"지혜"는 하나님과 그의 길들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은 영적인 지혜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필요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사를 가리킨다. "병고치는 은사"는 육체적인 필요들을 신령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은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역사되어지는 일이다. "예언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은사이다. 이것은 공식 예배 시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은사이다(14:1).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잘못된 영적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이다.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는 특별한 소리들을 말할 수 있는 은사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이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자주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은사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바울은 모든 은사가 각각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다.

"방언" 이해하기(고전 12:10, 28, 30)

먼저 방언이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는 이미 알려진 언어가 아니라 독특한 영적인 언어이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와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 두 세명이 말하도록 했으며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뜻이 무언인지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어야 했다(14:27).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공중이 모인 곳에서 잠잠해야 했다(14:28). 그리고 모든 방언은 "교회를 틈틈히 세우기 위해(개역 한글성경은 이를 '덕을 세우기 위해'로 번역했다)"(14:26) 해야 됐다.

둘째로, 이것이 오순절의 경험이었는가? 오순절에 일어난 일과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을 서로 비교해보자.

사도행전 2:4절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지만 고린도서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전 12:30). 오순절 때에는 이 "방언들"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었다(행 2:6). 고린도서에서는 오직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전 14:27-28). 오순절에서 이 "방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했다(행 2:6,7,11). 하지만 고린도서에서는 그들은 불신자들을 혼란하게 했다(고전 14:23).

그래서 오순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존의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것이다. 이 능력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고린도서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기존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위해 주어진 독특한 영적 언어이었다.

셋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를 갖고 있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29-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련의 수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그의 헬라어 문법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한다. 바울은 묻는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통역하겠느냐?" 바울의 이 수사적인 질문을 헬라어 문법을 빌어 다시 쓴다면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이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고린도전서 13:8절을 그 증거로 댄다. "방언도 그치고.." 그리고 그들은 "방언"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쓰여진 고마서, 에베소서와 그밖의 서신서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한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8절에서 바울은 또한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예언과 지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어떠한 신학자들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언과 지식이 폐해졌다고 말하지는 않을 줄 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바울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주목하라. "방언"은 은사로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당신이 방언을 해야되거나 혹은 통역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든가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말라. 하지만 또한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말라.

우리의 몸은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전 12:12-26)

인간의 몸은 많은 부분들로 되어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몸이다. 바울은 인체의 이 연합성을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묘사한다. 그는 발, 귀, 눈, 그리고 머리를 그려 몸을 설명한다.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몸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이 필요없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아름답지 못한 몸의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이 몸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 온몸이 그 고통을 겪게 된다. 몸의 한 부분이 유쾌할 때 온 몸이 좋은 것이다. 각 지체는 함께 몸을 위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신 놀라운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31)

바울은 이 진리가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침례를 통해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당연히 해야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 그 몸이 일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나의 은사는 당신의 은사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은사가 중요하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돋는 것도 은사이다. 로마서 12:8절은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다. 나누는 일, 온유함을 보이는 일, 안위의 말을 하는 일 또한 은사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육신을 위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우리의 은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공부하라. 은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가? 아마도 그것이 당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기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가? 그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라. 그것들은 아마도 당신의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될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 가지의 은사를 받았다.

질문

1. 왜 은사의 활용이 때로 교회를 분열시키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된 가운데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2. 어떤 은사들이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은사들이 가장 무시되고 있는가? 그렇게 간과된 은사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복음전파와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당신의 은사를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은사와 연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동역자 정신을 창출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4.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당신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보충]

자신의 은사 확인

-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은사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 * 말씀을 연구하라. 성서적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라.
- * 당신 자신을 연구하라. 당신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당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살펴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 당신의 동기를 살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기들이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실 것이다.

[제 11 과]	<h1 style="margin: 0;">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h1>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핵심본문 고전 13:1-13	<p>학습 주제 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p> <p>탐구 질문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p> <p>학습 목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는다.</p>

들어가기

그 부부는 결혼한지 겨우 몇 주 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올고 있었다. "왜 그래?" 남편은 물었다.

"저 개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녀는 훌쩍거렸다.

한 숨을 돌리며 남편은 말했다, "괜찮아, 다른 개로 바꾸면 되지 뭘." 그날 밤 아마도 두 부부는 빈 개집에서 잤을 것이다.

영적인 은사들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더욱 귀한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토론되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의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종종 "사랑의 장"으로 불리운다.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사를 오용하고 있었다. 방언의 은사는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없이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다.

특별한 사랑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페(agape)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사랑하신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고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전 13:1-3)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일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 만일 우리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그것 역시 아무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먹인다고 하자. 또 우리의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자.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필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사랑은 은사들처럼 나눌 수 없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고전 13:4-8)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가페 사랑을 묘사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도 이러한 사랑을 하는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것은 은혜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그것이 재산이든, 지위이든, 관계이든 간에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결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때에라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힘들고 때론 그것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항상 진리를 말하고 항상 그것을 듣는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영문 성경에(NIV)는 "to proect others"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의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승리의 확신에 찬 용기로 견디어 내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특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 도다"(마 23:37).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고전 13:8-13)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몇몇 은사와 비교한다. 성령의 은사들은 일정한 시기에 주어진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지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 오직 일부만 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그것을 동으로된 거울에 비교했다. 고대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서 사물을 명확하게 비쳐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울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없으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장차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복으로 글을 맺는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았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다. 믿음과 소망은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도 바로 사랑인 것이다.

질문

1. 바울은 고대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적 활동의 표현이었던 몇 가지를 인용하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한다: 설교, 방언, 산을 옮길만한 믿음,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줌, 자기 몸을 불살라 순교함. 만일 그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당신의 교회에서 이와 비교되는 어떤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까?
2.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왜 그런가?
3. 고린도전서 13:4-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기라고 불리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지상사역을 하는 동안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4. 당신의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과 비교하라. 당신은 아가페 사랑의 어여한 특징들을 가장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성령님께 오늘 기도하라.

[보충]

어떻게 성령충만해질 수 있는가?

- * 예배소서 5:18절을 읽고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라.
- *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지라.
- * 성령님께 당신 삶 속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그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라.
- * 당신의 뜻, 야망,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내려 놓으라.
- *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당신의 삶을 지배해달라고 간구하라.
- *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 * 매일 아침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붙잡고 살라.

[제 12 과]	<h1 style="margin: 0;">예수님을 전하기</h1> <h2 style="margin: 0;">(학습공과)</h2>
<p style="text-align: right;">핵심본문 고전 14:1-25</p> <p>학습 주제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고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p> <p>탐구 질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당신은 얼마나 사모하며 실행하고 있는가?</p> <p>학습 목표 예언과 방언의 중요성을 비교한다.</p>	

들어가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 대답을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제 그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다. 이 은사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고전 13:1).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 반대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는 당신이 모르는 어떤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묻기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행 2:8).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은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을 원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언어라고 믿는다. 그것은 기존의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기도의 언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행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사용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바울은 14장에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은사이다(고전 14:1-5)

바울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예언의 은사)을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은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준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안식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가져다준다. 영생도 또한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는 한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을 돋는다.

방언을 말하는 것(영적 언어)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방언을 하는 자의 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지는 않는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통역의 은사도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통역의 은사는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은사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 은사는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 은사의 올바른 용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 은사들 중에서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옮겨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신다. 우리가 이 은사를 주는 자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주신다. 바울은 그 용도에 대해 몇 가지 지침을 준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가장 도움을 주는 은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전 14:6-12)

바울은 의미없는 말들을 음의 분별없이 소리를 내는 악기에 비유했다. 악보들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 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겠는가? 나팔도 명확한 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야지 병사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병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나팔의 소리를 듣고 구별했다. 어떤 음을 내면 병사들은 앞으로 전진했다. 또 어떤 음을 내면 그들은 돌아서 후퇴를 해야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14:9)고 말한다. 나의 아내와 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매우 혼동스러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영어를 말할 줄 아는 한 병사가 우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국 사람이 전하고 있는 설교를 영어로 적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그는 전달해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뻤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받기를 매우 사모했다.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은사들을 사모하도록 권면했다.

방언이 교회의 연합을 깨지 않도록 하라(고전 14:13-25)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격려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됨도 없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고 말한다.

방언은 오순절 사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은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인데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랐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주 행해졌다. 만일 불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은 혼동이 되곤 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커다란 기쁨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모두 방언하는 자겠느냐? 아니다"(고전 12:30)이라고 말했다. 먼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도록 하라. 그리고 어떤 은사이든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

질문

1. "방언"에 대한 주제는 혼동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갈라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은사가 당신의 교회에 한 이슈로서 등장하는가? 오늘 수업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2. 만일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3.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4. 위대한 기독교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한 정도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환경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보충]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으로부터 행함으로 옮기는 방법

- * 본문의 의도하는 바를 기록하라.
- * 본문의 배경과 당신이 사는 상황의 차이점을 구분하라.
- * 본문이 의도하는 삶의 영역에서 직접 적용하라.
- * 본문이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때 실재적인 원리들을 찾아내라.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정한 음식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 * 본문이 오늘의 삶 속에서 행하도록 제시하는 것을 최소한 한 가지 발견하라.

[제 13 과]	<h2 style="margin: 0;">부활의 소망</h2> <p style="margin: 0;">(학습공과)</p>
<p style="margin: 0;">핵심본문</p> <p style="margin: 0;">고전 15:3-20, 35-44, 50-57</p> <p style="margin: 0;">학습 주제</p> <p style="margin: 0;">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다.</p> <p style="margin: 0;">탐구 질문</p> <p style="margin: 0;">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p> <p style="margin: 0;">학습 목표</p> <p style="margin: 0;">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다.</p>	

들어가기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는 교회의 분열과 문제들에 대해 기록되어졌다. 편지의 일부는 은사와 그들의 사용에 대해 논의 되어졌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장도 포함시켰다. 이제 그는 부활의 위대한 소망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음이 찾아올 지 모른다. 바울은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전 15:3-11)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는 장사지낸바 되셨다. 그는 삼일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그가 돌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또한 부활하신 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500명 이상이 되는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 약 25년 뒤에 이 서신을 썼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그 500명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펁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고전 15:12-20)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의심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의심쩍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들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19절). 킹제임스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비참한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이 땅의 삶일 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속적인 생명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이 될 것인가?(고전 15:35-44)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바보같은 질문이라고 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진리들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진다. 바울이 사랑의 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여기 지상에서는 오직 부분만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동으로 만든 희미한 거울을 보듯 보는 것이다. 우리는 명확한 이미지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예들을 보여준다. 하나의 씨가 땅 속에 뿌려진다. 그것으로부터 씨와는 전혀 다른 모양인 식물이 나오는 것이다. 다른 씨로부터 다른 식물이 나온다.

모든 육체는 서로 다르다. 인간은 한 종이다. 동물은 다른 종이다. 물고기와 새들은 여전히 다른 종류이다. 당신이 식당에서 고기를 주문한다고 가정하자. 여종업원이 당신에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당신은 다른 것이 나왔다는 것을 즉시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양도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태양, 달, 별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각각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는 일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다.

우리의 지상의 육체는 죽은 이후 먼지로 돌아간다. 부활한 몸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상의 육체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연약하다. 우리는 몸이 죽은 이후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몸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한 재능이 많은 협신적인 여인이 몇 년전에 죽었다. 그녀는 우리의 해외선교 프로그램 가운데서 서예를 가르쳤다. 담임 목사님은 그녀가 죽었을 때 해외에 있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유머작가가 그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즐거운 예배였다. 그녀의 삶은 사랑스럽게 기억되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농담도 없었지만 많은 웃음이 넘쳤다. 이 친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서 나오는 즐거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 가운데 그녀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몸을 공급하실 것이다. 신자들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고전 15:50-57)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의 육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되어야 한다. 바울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 몸이 변화 될 것이다. 그것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죽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 할 것이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질문

1. 당신의 생각에 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와 부활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2. 부활의 실재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 줄 수 있는가?
3.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오늘의 본문과 교훈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를 믿기에 너무도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보충]

의심이 많은 자를 돋는 단계들

- *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며 매일 기도하라.
- *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라
- *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라.
- *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이외의 증거를 보여주라
- *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어라
- *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들을 나누라
- * 믿음은 모든 증거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라. 예수님을 확신하는 유일한 길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라.